

(무)알리안츠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무)알리안츠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에이비엘생명에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에이비엘생명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에이비엘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 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
| 펀드 명칭 | (무)알리안츠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V062 | | |
| 펀드의 종류 |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 최초설정일 | 2017.05.12 |
| 운용기간 | 2017.04.01 ~ 2017.06.30 | 존속기간 | 최장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
| 자산운용회사 | 에이비엘생명보험 | 펀드재산보관회사 | 국민은행 |
| 판매회사 | 에이비엘생명보험 | 일반사무관리회사 | 하나펀드서비스 |
| 상품의 특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목적은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처 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인 자본이득을 창출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수익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 펀드명칭 | 항목 | 전기말 | 당기말 | 증감률 |
|---------------------|-------------------|------|--------|------|
| (무)글로벌인프라 주식재간접형 | 자산 총액 (A) | 0 | 19 | 0.00 |
| | 부채 총액 (B) | 0 | 0 | 0.00 |
| | 순자산총액 (C=A-B) | 0 | 19 | 0.00 |
| |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 0 | 19 | 0.00 |
| | 기준가격 (E=C/D×1000) | 0.00 | 997.30 | 0.00 |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4월에 미국 경제지표들은 1분기보다 다소 완화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4월말에 발표된 미국 1분기 GDP는 실질소비의 부진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의 경우 OPEC의 감산연장 합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재고량 확대 및 과잉공급이 우려감으로 작용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동 펀드의 파이프라인 섹터의 경우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편, 3월 Fed의 금리인상 후 엘렌의장의 금융긴축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 및 Fed위원들의 비둘기적인 입장표명으로 하락세를 보인 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금리, 저달러 선호 발언이 있었던 가운데 4월에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유틸리티 및 리츠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5월에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 그리고 트럼프의 FBI국장 해임 사건으로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불거진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획하던 세계 개편, 인프라투자 확대 등과 같은 시장친화적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경기 펀드멘탈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FOMC의 사록에서 Fed의 완화적 정책 기조 의사가 확인된 가운데 미국증시는 5월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당선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유럽 국가들의 긍정적인 경제지표들이 발표된 가운데 유럽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말에 이탈리아 조기총선 가능성이 상승하고 그리스 구제금융 지급에 대한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유럽 불확실성은 다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권 관리의 경우, 3월 Fed의 금리인상 후 트럼프의 저금리, 저달러 선호 발언이 있었던 가운데 5월에도 낮은 수준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동 펀드의 금리 민감 섹터인 유틸리티와 리츠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유가는 OPEC과 비OPEC의 감산합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미국 발 공급공급에 대한 우려감으로 WTI기준 배럴당 50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6월에 FOMC는 시장예상과 같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B/S 축소에 대한 계획 또한 발표하였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월 종순까지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국제 결제은행(BIS)이 6/25 연례보고서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ECB와 BOE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던 가운데 월말에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초 후 긍정적 성과를 보였던 통신위인프라(특수 REITs)와 유틸리티 종목들은 월말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OPEC이 높은 감산이행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리비아 과잉공급에 따른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유가가 6/21에 \$43 아래까지 급락한 가운데 동 펀드의 파이프라인 섹터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미국 원유재고량이 축소되고 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파이프라인 섹터 또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선진국 금리 상승은 특히 금리민감 섹터인 유틸리티와 REITs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시장이 Tantrum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 중앙은행은 재차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빠른 금리상승이 fair value를 반영하지 않는 금등이러한 과거 수 차례의 사례를 보았을 때 B/S, C/F가 좋은 종목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2013 Taper tantrum, 2015 유럽 발 경기금리 상승 등). 한편, 유가가 5월 종순 이후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동 펀드는 5월말 기준으로 전월 대비 파이프라인에 대한 노출도를 약 6%기량 (4월말 33% vs BM 26% -> 5월말 27% vs BM 25%) 축소하는 등 단기적으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근 낮은 유가 수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 확대에 따른 송유관 이용량 증가는 파이프라인 기업들 매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 원유 시추기업들의 기술 개선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유가 breakeven point가 최근 40달러 초 중반까지 낮아진 가운데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으면 파이프라인 섹터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주식시장의 상승모멘텀이 축소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꾸준한 매출 및 안정적인 이익성장세를 보이는 기업들에 투자하며 역사적으로 주식시장 대비 높은 위험조정수익률을 보인 인프라펀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최근 9개월 | 최근 12개월 |
|-----------------|--------|--------|--------|---------|
| (무)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 | - | -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 - | - | - | - |
| 비교지수(벤치마크) | 0.00 | 0.00 | 0.00 | 0.00 |

※ 비교지수(벤치마크): Dow Jones Brookfield Global Infrastructure Index USD 90%,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
| (무)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 - | - | - | - |
| (비교지수 대비 성과) | - | - | - | - |
| 비교지수(벤치마크) | 0.00 | 0.00 | 0.00 | 0.00 |

※ 비교지수(벤치마크): Dow Jones Brookfield Global Infrastructure Index USD 90%, Call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낸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손익 합계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전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당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 구분 | 증권 | | |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집합 투자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KRW (1.00) | (0.00) | (0.00) | (0.00) | (42.32) | (0.00) | (0.00) | (0.00) | (0.00) | (0.00) | (57.68) | (0.00) | (100.00) |
| 합계 | | | | 8 | | | | | | 11 | | 19 |

※ () : 구성비중

| 전기 | 당기 |
|----------|----------|
| 자산별 구성비중 | 자산별 구성비중 |
| | |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 |
|----------------------|---|
| 환헤지란?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비용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단위 : %, 백만원)

|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 기준일(17.06.30)현재 환헤지 비율 | 환헤지 비용 (17.04.01 ~ 17.06.30) | 환헤지로 인한 손익 (17.04.01 ~ 17.06.30) |
|--------------------|------------------------|--|----------------------------------|
| - | 93.00% |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한 유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 구분 | 종목명 | 비중 | 구분 | 종목명 | 비중 |
|----|------------------------------------|-------|----|-----|----|
| 1 | 집합투자증권 하나UBS글로벌인프라증권투자(CF) | 42.32 | 6 | | |
| 2 | 단기상품 수익증권청약저금(하나UBS 자산운용 20170515) | 37.16 | 7 | | |
| 3 | 단기상품 은대(국민은행) | 20.51 | 8 | | |
| 4 | | | 9 | | |
| 5 | | | 10 | |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좌수, 백만원, %)

| 종목명 | 종류 | 자산운용사 | 설정원본 | 순자산금액 | 발행국가 | 통화 | 비중 |
|----------------------|-----|-----------|------|-------|------|-----|-------|
| 하나UBS글로벌인프라 증권투자(CF) | 주식형 | 하나UBS자산운용 | 8 | 8 | 대한민국 | KRW | 42.32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 종류 | 금융기관 | 취득일자 | 금액 | 금리 | 만기일 | 발행국가 | 통화 |
|-----|-----------|------------|----|------|-----|------|-----|
| 청약금 | 하나UBS자산운용 | 2017-06-29 | 7 | 0.00 | | 대한민국 | KRW |
| 예금 | 국민은행 | 2017-05-12 | 4 | 0.92 | | 대한민국 | KRW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전기 | | 당기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자산운용사 | 0 | 0.00 | 0 | 0.00 | |
| 판매회사 | 0 | 0.00 | 0 | 0.06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0 | 0 | 0.00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보수합계 | 0 | 0.00 | 0 | 0.06 | |
| 기타비용 | 0 | 0.00 | 0 | 0.00 | |
| 매매·중개수수료 | 단순매매·중개수수료 | 0 | 0.00 | 0 | 0.00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수수료 | 0 | 0.00 | 0 | 0.00 |
| | 합계 | 0 | 0.00 | 0 | 0.00 |
| 증권거래세 | 0 | 0.00 | 0 | 0.00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 | 총보수·비용비율(A)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 합계(A+B) |
|----|-------------|----------------|---------|
| 전기 | 0 | 0 | 0 |
| 당기 | 0.4518 | 0 | 0.4518 |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 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5.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을

(단위 : 백만원, %)

| 수량 | 매수 | | 매도 | | 매매 회전율 | |
|----|----|----|----|----|--------|------|
| | 수량 | 금액 | 수량 | 금액 | 해당기간 | 연환산 |
| 0 | 0 | 0 | 0 | 0 | 0.00 | 0.00 |

※ 매매회전율이란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금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매매회전율이 높을수록 매매거래수수료(0.1% 내외) 및 증권거래세(매도시 0.3%) 발생으로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

| 2016-10-01 ~ 2016-12-31 | 2017-01-01 ~ 2017-03-31 | 2017-04-01 ~ 2017-06-30 |
|-------------------------|-------------------------|-------------------------|
| 0.00 | 0.00 | 0.00 |

6.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 개, 억원)

| 성명 | 직위 | 나이 | 운용중인 펀드 현황 |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 | 협회등록번호 |
|-----|-----|----|------------|--------|-------------------------|------|------------|
| | |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
| 이현구 | 부사장 | 48 | 69 | 19,901 | - | - | 2111000044 |
| 남경은 | 과장 | 33 | 69 | 19,901 | - | - | 2109001500 |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운용전문인력이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란 운용전문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기준일 | 운용전문인력 |
|-----|---------|
| | 변경내역 없음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